

'어른은 아니고 서른입니다'

첫마중길 여행자도서관서 30일까지 니나킴 작가특별전... 삽화 작업 한 도서 등 선배

전주시립도서관 '꽃심'은 첫마중길 여행자도서관에서 오는 30일까지 지역 청년 예술가인 니나킴 작가 특별 전시전을 연다.

전북대학교에서 산업디자인을 전공한 니나킴 작가는 이번 전시전에서 ▲Smile ▲Diet ▲Mate Slow ▲Love 등을 주제로 한 일러스트 그림을 비롯해 경기전, 전통성당, 풍남문 등 전주명소를 소재로 한 작품, 창문에 그림을 그려 완성한 윈도우 페인팅 작품 등을 선보인다.

이와 함께 ▲어른은 아니고 서른입니다 ▲잠시 주춤했습니다 ▲Mater ▲사라지고 싶은 날 등 작가의 저서와 함께 삽화 작업을 한 도서도 함께 전시된다.

시는 이번 전시전을 통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 작가의 작품을 시민과 여행객들에게 소개함으로써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남미 전주시립도서관장은 "예술 작품을 통해 코로나19로 지친 일상을 치유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첫마중길 여행자도서관은 지역 작가의 색다른 작품을 전시하고 작가들과 협업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시립도서관 '꽃심'은 첫마중길 여행자도서관에서 오는 30일까지 지역 청년 예술가인 니나킴 작가 특별 전시전을 연다.

한편 전주역 앞에 위치한 첫마중길 여행자도서관은 잡지·여행책·한정판 도서와 미술, 디자인, 사진, 건축 등을 주제로 한 아트

북이 비치돼 있으며, 시민과 여행객들을 위한 휴식공간 및 특화도서관으로서 사랑받고 있다. /김윤성 기자

'전주 예술인이 뜬다'

시, 10월까지 '시골버블 인터뷰' 추진

전주시가 지역 예술인들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인터뷰 영상을 제작 지원한다. 시는 오는 10월까지 음악, 미술, 연극 등 지역 예술인 10명을 대상으로 '전주예술인 시골버블' 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전주 예술인 시골버블'은 예술인들의 비대면 홍보를 지원하고 시민들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술인들은 인터뷰 영상 제작과 토크쇼 등을 통해 자신을 알리게 된다.

인터뷰를 하는 10명의 예술인은 ▲오은하(음악) ▲이백희(음악) ▲이주리(미술) ▲박규현(연극) ▲최기우(희곡) ▲홍화영(무용) ▲장근범(사진) ▲하형래(연극) ▲조성국(비보이) ▲송지희(희곡) 등이다.

이들은 작업실과 공연장, 지역 명소 등에서 진행되는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창작활동과 작품 예술에 대한 자신의 철학 등에 대해 진솔하게 얘기하면서 자신을 대중에게 홍보하고 소통하게 된다.

오는 10월에는 오거리문화광장에서 인터뷰 참여자와 함께하는 통합 토크쇼도 진행될 예정이다.

예술인들의 인터뷰 영상은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유튜브 채널(사관법인 아이엠)을 통해 공개되고, 전주마켓박스 전광판(오거리광장) 등에도 송출된다.

이와 관련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봉착한 지역 문화예술계를 위해 ▲문화예술인 재난지원금 지원 ▲비대면 아트 공연 ▲청년 문화예술인 임대주택 공급 ▲전주 청년예술시(점) ▲전주형 비대면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실현 공모전 ▲예술인 유튜브 크리에이터 교육 등을 진행해왔다. /김윤성 기자

작은 생물들의 큰 이야기

무주 곤충박물관서 똥벌레 속 생물 전시

갈수기 농업용수를 저장했던 '똥벌레'의 생태학적 의미를 알리는 '무주의 똥벌레 속 생물 특별전'이 무주 곤충박물관에서 열리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무주군은 지난 1일부터 오는 9월 12일까지 74일 동안 곤충박물관내 로비에서 무주의 똥벌레 속 생물 특별전(작은 생물들의 큰 이야기)을 열고 똥벌레 속 생물 20여종을 전시 중에 있다고 8일 밝혔다.

똥벌레 속 생물은 다슬기를 비롯해 참붕어, 물달팽이, 우렁이, 물자라, 왕잠자리, 새뱅이, 줄새우 등이 전시돼 있다.

군은 관람객들에게 시각적 청각적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설명패널, 시청각 자료 및 전시수조를 설치했다. 또 똥벌레의 실제모습 등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해 전시효과를 높였다.

체험과 교육이 있는 곤충박물관 운영으로 관람객의 만족도 증가와 대외 인지도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기대 효과도 있다.

시설사업소 반디유원팀 김도환 팀장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사라져가는 똥벌레의 역할과 효과를 관람객들에게 알리고 체험과 교육 등으로 청소년들에게 큰 교육적 효과를 주는 것이 취지"라며 "하계 성수기와 반딧불 축제 기간 동안 특별전을 운영함으로써 곤충박물관과 무주 자연생태계의 다양성을 알리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평지보다 수리시설이 크게 부족했던 무주 등 산간지역에서는 이러한 똥벌레의 역할이 컸다고 알려졌다. 그리고 똥벌레는 항상 물이 고여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비상용수 저장고의 기능



뿐만 아니라 수생동물들의 피난처와 서식처로도 중요한 기능을 했다.

한편, 1970년대 이후 전국적으로 관계수로를 조성, 농업용수 부족이 해소되어 이미 조성된 똥벌레를 농토로 전환되면서 상당수가 사라졌다가 농업생태계의 생물들에 대한 학술적 의미가 커지면서 똥벌레에 대한 생태학적 역할이 재조명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북관광발전 의지 다짐'

균형발전 정보협력 포럼

이거전 대표이사(전북문화관광재단)가 8일 목포 남악 복합주민센터 대강당에서 개최된 '제4차 균형발전 정보협력 포럼(2021-전북·광주·전남)'에 토론자로 참가해 의견 및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이 대표는 이날 토론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관광 트렌드 변화, 전북관광 추진방향과 전북, 광주, 전남 등 전라호남권 연계 관광활성화 방안의 중요성을 제시하는 한편, 작은 성공시대를 통해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포럼에 앞서 광주관광재단 남성수 대표이사, 전남관광재단 이진철 대표이사, 호남대학교 호텔경영학과 김진강 교수, 전남사회혁신네트워크 정순남 이사장 등 포럼에 참석한 내빈들과 환담을 하면서 현안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우의를 다졌다.

한편 재단은 이날 포럼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역관광 활성화 발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관광진흥팀(063-230-7470~2)에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지역특성화 메세나 통한 문화생태계 조성

전북문화관광재단, 문화예술후원 협력 네트워크 지원 공모 선정

전북문화관광재단은 지난 6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문화예술후원네트워크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공공과 민간의 문화예술 후원 매개 및 협력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는 것에 의의를 두고 있다.

재단은 'WE GO, ME GO(함께가는 아름다움, 후원의 밤)'이라는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이는 지역 특성화 메세나 사업의 기반 구축을 통해 건강한 문화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문화예술후원네트워크지원 사업의 총 예산액은 2억원이고, 전국에서 재단을 포함한 11개 단체가 사업 대상자로 선정됐으며 지원 금액은 1,800만원이다. 재단은 'WE GO, ME GO(함께가는 아름다움, 후원의 밤)' 사업을 통해 기업과 예술이 함께 가면 아름다움도 함께 간다는 방향성을 정하고 예술과 기업의 올바른 후원문화를 조성할 예정이다.

재단 기획홍보팀 김병석 팀장은 "이번 기회를 계기로 재단·기업·문화예술 간의 다각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후원의 밤 행사가 기업과 예술인 모두 많은 관심을 가지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영기획본부 기획홍보팀(063-230-7413)에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고창문화관광재단, 마을 레지던시

입주자가 추가 모집... 16일까지 신청

(재)고창문화관광재단이 지역 내 거주하며 주민들과 문화예술 활동을 진행할 입주자를 추가 모집한다.

앞서 재단은 공개모집을 통해 책과 관련된 복합문화공간 '책마을레지'를 레지던시 운영 단체로 선정하였다. 모집대상은 고창군 이외에 주소를 둔 예술인이며, 개인뿐만 아니라 2인으로 구성된 그룹 및 단체도 참여할 수 있다.

최종 선정된 예술인은 거주 기간 동안 창작공간 및 창작지원금을 지원받으며,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한다.

신청은 오는 16일까지 재단 홈페이지(art.gochang.go.kr)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모집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고창=김영성 기자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